

詩와 基督教의 만남에서의 몇 問題

—韓國 近代詩와 基督教 ①—

梁 汪 容

- | | |
|---------------|-------------------|
| 1. 序 論 | 3. 用語와 領域 設定의 矛盾相 |
| 2. 지금까지의 研究動向 | 4. 結 論 |

1. 序 論

詩와 基督教가 관련지어져서 論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 까닭을 가장 상식적인 측면에서 지적한다면, 詩의 本質이나 特性이 論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基督教 역시 그것을 考察하는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基督教을 宗教의 次元에서부터 벗어나게 위치를 설정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을 일러 基督教의 非宗教化라고 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여러 主張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생각을 筆者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그런 能力도 없다. 가장 一般的인 見解라고 볼 수 있는 基督教을 宗教의 樣相으로 보아 詩와 宗教의 관련성이라는 立場으로 論議의 出發을 삼기로 한다.

詩와 基督教 乃至 文學과 宗教에 대한 考察은 이미 오래 전에 T.S.

1) 柳東植: 韓國宗教와 基督教(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65) pp. 235~236 再拔萃. D. Bhoneoffer는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에서 宗教는 ㉠ 지나치게 形而上學的이고 ㉡ 利己의이요 個人主義의이며 ㉢ 死後의 靈魂 구원에만 흥미를 가지고 ㉣ 罪라든가 死亡이라든가 하는 人生의 극한점에 살고 있으며 ㉤ 거룩한 것을 빙자하여 人間性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宗教없는 基督教(a religiouless christianity)을 주장하고 있다.

Eliot가 간단하지만 명쾌하게 골격을 세워놓고 있다²⁾. 그리고, 그는 그 주장과는 다른 글에서도 詩와 宗教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구별 짓고 있다.

詩는 道德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며, 政治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宗教도 아니요, 宗教에 상당하는 어떤 것도 아니다.³⁾

그는 이상과 같이 詩는 오직 詩로서만 存在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詩가 어떤 다른 目的에 쓰여지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筆者 역시 詩를 쓰는 詩人으로서나, 基督教 平信徒의 입장에서든 T.S. Eliot의 주장에 동감한다. 그렇다고, 윗 引用의 文脈과 같은 主張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詩가 基督教나 宗教에 부속될 때 그것은 二流詩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⁴⁾

筆者가 궁극적으로 問題를 삼고 있는 것은 宗教文學이 아니고 宗教를 文學研究, 특히 詩研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은 이미 앞에서 言及한 T.S. Eliot가 내세우고 있지만, 筆者 역시 文學과 宗教의 相關성을 研究하는 곳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입장이라고 보아진다.

2. 지금까지의 研究動向

韓國文學의 研究에서 開化期 혹은 近代의 起點과 거의 同時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基督教의 傳來時期 때문에 지금까지 詩와 基督教에 대한 相關성이 여러 形態의 紙面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그 研究의 動向을 筆者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빈번하게 논의된 원인에서 直接的으로 착안한 改新教 傳來 初期의 聖經 翻譯과 讚頌歌 翻譯이 開化期 詩歌나 新體詩, 나아가서는 音樂이

2) T.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1935) (崔鍾壽譯, 文藝批評論. 博英社) pp. 97-117

3) T.S. Eliot: The Sacred Wood (London Faber and Faber, 1969)p. X.

4) T.S. Eliot: op cit., p.100.

나 文化 全般에 끼친 影響을 研究한 方向을 들 수 있다.⁵⁾ 이러한 方向은 결국 聖經과 讚頌歌의 번역이 韓國 近代詩의 形成과 심지어는 한글 文體에까지 影響을 미쳤다고 하고 있는데 일종의 文學史 乃至 文化史의 關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主張은 文獻的인 정확성과 논리의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큰 問題點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基督教人인 文學批評家나 敎授들에 의해서 基督教의 信仰이나 精神과 韓國近代詩와의 관련성을 살핀 것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基督教詩 乃至 宗教詩의 用語定義를 둘러싸고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基督教 信仰과 詩精神 혹은 詩의 技巧 問題가 領域을 놓고 많이 충돌하고 있다.⁶⁾ 따라서, 本考에서 주로 解明할 사항도 바람직한 定義와 領域의 限界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信仰과의 관련성을 韓國近代詩 全體의인 面에서 보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特定한 詩人의 特定한 作品에서 찾는 경우들도 있다.⁷⁾

- 5) ㉠ 金秉喆：韓國近代翻譯文學史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75) pp.17-151 第一章 先史의 考察
- ㉡ 金永德：韓國近代的 文學背景과 基督教 (서울, 이화여대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6집, 1966) pp.75-116
- ㉢ 金晉均：基督教 讚頌歌가 韓國 音樂文化에 미친 影響 (大邱, 啓明大 東西文化 1집, .1967) pp. 93-108
- ㉣ 金禧寶：韓國 基督教文學史 概觀 (韓國 文學과 基督教, 서울, 현대사상사, 1979) pp. 349-373.
- ㉤ 鄭漢模：韓國 現代詩文學史 (서울, 一志社, 1974) p. 134.
- 6) ㉠ 金榮秀：韓國基督教詩의 位相 (基督教와 文學, 서울, 한국기독교 문학 연구소 출판부, 1978) pp. 173-190
- ㉡ 金禧寶：op cit., III부 pp. 225~297
- ㉢ 명계웅：기독교 문학의 특징 (한국 종교문학전집 ① 서울, 세시대 문학사, 1972) pp. 373-378.
- ㉣ 朴斗鎭：基督教와 韓國 現代詩 (現代文學, 1964, 10月號) pp. 52-73
- ㉤ 朴斗鎭：韓國 基督教詩의 未來 (韓國宗教文學全集 ① 서울, 세시대문학사, 1972) pp. 20-25
- ㉥ 정홍권：기독교 문학에 대하여 (신앙과 문학, 부산, 아주출판사, 1972) pp. 212-256.
- ㉦ 황금찬：韓國 文學에 투영된 기독교사상 (韓國文學 1962.2月號) pp. 258-267.
- 7) ㉠ 金榮秀：神學的 想像力, (韓國文學, 1976. 7월호) pp. 251-257.
- ㉡ 金禧寶：op cit., II부 pp. 131-221 (金素月, 金顯承, 朴斗鎭, 尹東柱, 光復以後의 詩)
- ㉢ 安洙環：朴木月의 基督教詩 (詩文學, 1980. 11월호) pp. 82-93.

이상과 같은 측면 말고도 神學과 宗教學的 측면에서 文學一般이나 文化一般과의 연관성에 관한 言及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論議할 問題點의 批判乃至 새로운 主張의 定立을 위한 論據들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批判이나 主張들은 筆者의 信仰의 자세에 대해 既成教會에서 問題를 제기할 素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素地는 비단 筆者에게 뿐만 아니라, 信仰人 혹은 宗教人들과 學者들이나 知性人 사이의 대립 혹은 宗教的 信仰과 知的 正直 사이의 상호 불신의 樣相으로까지 問題를 일으키기도 한다.⁸⁾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本考를 집필하는 것은 筆者의 專攻인 韓國近代詩 혹은 現代詩 研究로서 基督教의 信仰告白을 한다는 意味에서 筆者의 全生涯를 통한 作業의 出發이라고 보아진다. 이미 筆者는 六堂과 春園의 詩에 나타난 基督教 影響을 살핀 바 있으나⁹⁾, 그것은 어쩌면 無自覺한 글이라 앞으로 많은 가필과 정정의 기회가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3. 用語와 領域 設定의 矛盾相

基督教詩 혹은 宗教詩라는 用語가 빈번히 使用되기는 하나 그 使用 가능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은 채 많은 문제점을 안고 막연하게 使用하는 것이 韓國近代詩 研究의 實像이다. 뿐만 아니라, 使用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라도 글에 따라서 다른 概念과 領域이 설정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研究家들은 用語의 定義마저 분명하게 시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使用하고 있다.

① 基督教思想이나 基督教信仰을 바탕으로한 基督教詩가 있었는가 하고 살펴볼 때 그러한 作品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零細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불만한 作品成果로서

8) Richard. R. Niebuhr; 惡에 대한 正直(Intellectual Honesty and Religious Commitment, Edited: Arthur J. Bellinzoni, Thomas V. Litzenburg, U.S. 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同譯書 中央新書18) p.26

9) 筆者: 六堂, 春園의 詩에 나타난 基督教 影響 (荷西 金鍾雨 박사 華甲紀念論叢 1977) pp. 243-258.

의 基督教詩가 없거나 대단치 않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基督教나 基督教信仰이 그만큼 韓國의 現代詩 成長에 아무런 直接的인 影響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유력한 반증이 되는 것이다.¹⁰⁾

㉠ 基督教詩라는 理由만으로 一般 現代詩의 詩의 水準에 미치지 못해도 좋다는 법은 있을 수 없으며, 現代詩란 理由 때문에 基督教思想이나 精神, 그 情緒의 形象的인 表現을 拒否할 것이 아닌 이상 基督教詩는 完璧하고 理想的인 基督教詩이면서 동시에 完璧하고 高度한 純粹現代詩여야 한다는 命題를 至上命分的으로 받아가지고 있다.¹¹⁾

㉡ 韓國에 있어서의 基督教詩의 成立과 그 成功은 물론 불가능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成立과 成功의 가장 主要한 本質的인 問題는 이러한 宗教的인 산 체험을 어떻게 民族의 言語로서의 詩를 승화시키고 血緣化시키느냐에 의존해 있다.¹²⁾(㉠㉡傍點 引用者)

㉢의 引用에서 朴孝수는 基督教詩라는 用語를 빈번하게 使用하고 있으나, 그 定義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개념 파악이 곤란하다. ㉠만 볼 때에는 詩의 主題 중에서도 제한된 부분을 취급하는 二流詩로서의 宗教詩乃至 信仰詩¹³⁾를 가리키는 것도 같다. 그러나 ㉠과 ㉡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단순한 基督教詩이기를 거부하면서 ‘完璧하고 理想的인 基督教詩’이면서 또 ‘純粹現代詩’이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民族語로서의 전통과 基督教的 體驗의 土着化를 누리고 싶다는 朴孝수의 意志가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基督教詩의 領域이 모든 詩에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宗教와 詩의 先後 問題나 形象化를 놓고 두가지 범주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基督教이라는 外來宗教를 土着化시켜야 되겠고 韓國文學에도 基督教的인 詩가 뿌리를 내려야겠다는 점은 남득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基督教詩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非基督教詩를 設定한 셈이 되고, 이것은 결국 T.S. Eliot가 가장 원하지 않는 基督教人을 상대로 한 文學과 異教徒를 상대로 한 文學이 存在하는 상태¹⁴⁾를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게

10) 朴斗鎭: 基督教와 韓國의 現代詩 (op. cit.) p. 53.

11) 朴斗鎭: 韓國 基督教詩의 未來 (op. cit.) p. 25.

12) 朴斗鎭: 基督教와 韓國의 現代詩 (op. cit.) p. 60.

13) T.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op. cit.) p. 98.

14) Ibid p. 105.

된다. 基督敎의인 世界觀이나 信仰을 가진 詩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基督敎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無意識的 基督敎詩가 쓰여져야 할 것이며, 文學的 眞理와 宗教的 眞理가 분리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文學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神學的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民衆 속에 世人과 더불어 살며 이들을 이끌어 하나의 子女된 自覺 속에 살게 함으로써 人間의 自由와 尊嚴性을 實現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의 敎會는 고작 敎會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獨善的인 의미에서 世人과 구별된 聖徒의 收容所를 꿈꾸는 것이나 아닐까? 하나님은 宇宙의 하나님인 이상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마땅히 全人類의 그리스도여야 할 것이다. 世俗 속에도 敎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활동하실 것이며, 敎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이 社會 안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聖俗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¹⁵⁾

이상과 같은 神學者의 논리대로 聖俗의 구별이 없는 敎會가 되어야 할 것지만 우리의 現實은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基督敎라는 修飾語를 가지 고서는 참으로 基督敎를 土着化할 수 없고, 基督敎의인 感動을 담은 詩를 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울타리와 거치장스러운 修飾을 버리고 그냥 詩로서 無意識的인 宗教詩가 되는 길이 바로 올바른 態度일 것 같다.

金禧寶씨는 基督敎 文學의 定義 條件을 ①christian이라는 작가의 자격, ② 基督敎의 視點(Hebraism의 靈性, 德性, 神의 歸依) ③ 文學作品으로의 일반적 정외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상 세 가지¹⁶⁾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基督敎文學의 장르 설정을 여러 측면에서 역설하면서, 러스킨이나 헤세, 도스토예프스키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들 作家가 基督敎人이라는 것에 의해서 作品이 世界性을 획득한 것은 아닐 것이며, 그들이 基督敎人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作品, 例를 들면 「카라마조프의 兄弟들」을

15) 柳東植 : op. cit., pp. 228-229.

16) 金禧寶 : op. cit., pp. 257-272.

基督教小說이라고 하지 않는다. 金씨의 이론대로 라면 基督教人만 되면, 심각하고 ‘궁극적인 關心’¹⁷⁾으로 基督敎的인 作品을 쓸 수 있다는 論理가 성립된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文學, 世界性을 획득한 文學을 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敎會의 문을 두드리면 될 것이라는 위험한 논리가 성립된다. 이런 위험성은 이미 다른 이가 지적한 바 있다.¹⁸⁾ 그리고, 또 첫째 項目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異敎徒나 信仰을 가지지 않은 作家가 基督教을 素材로 하여 쓴 作品(例를 든다면, 金東里의 ‘사만의 十字架’나 李文烈의 ‘사람의 아들’ 같은 것)들이 基督教人에게 읽혀져 깊은 信仰的 感動과 자기 信仰의 樣相에 反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그것을 基督教文學이라고 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들의 小說이 基督教의 矛盾點을 지적하여 聖職者나 편협한 基督教人들의 비위를 거슬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最近 ‘사람의 아들’의 戯曲本을 聖劇의 무대에 올린다고 하다가 敎會의 牧師에게 제지를 당한 大學生會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筆者의 體驗으로는 ‘사만의 十字架’나 ‘사람의 아들’에서 많은 信仰的 絶단을 얻었다. 이러한 경우 充分히 基督敎的인 文學이 될 것이다. 筆者의 생각으로 基督教文學(金씨의 見解대로 한 定義로 쓴 것임)은 作者보다도 讀者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Incarnation(成肉)되느냐에 그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基督教의 이라해도 基督教을 배타적으로 보는 讀者에게는 화해와 사랑보다도 분노와 경멸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 어떻게 基督敎的 眞理가 成肉身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筆者 나름대로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번째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특히 이 問題는 바로 세번째의 文學作品의 一般的 定義와 서로 충돌될 수가 있다. 文學은 원래 多樣性 속에서 美的인 範疇에 의해서 해석되어 지는 것인데, Hebraism의 要素에 한정되면 결국 金씨의 지적대로 靈性이나 德性만 강조하여 文學의 特性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이 세 가지 要件으로 基督教文學을 정의하면

17)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U.S.A. New York Qxford University Press. 1964) 同譯書: 金京洙, (대한 기독교서회) p. 52.

18) 李商燮: *언어와 상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0) p. 246.

결국 護敎文學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金씨 自身은 같은 글의 바로 앞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여 自家 撞着에 빠지고 있다.

너무 신앙문제에 치우치면 문학이라고 할 수 없는 護敎文學이 되어버리고
난다. 그것은 마치 일반 작가가 작품 안의 인물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할 때
에 그것이 通俗小說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¹⁹⁾

결국 그에 의하면 ‘基督教에 있어서의 문학’은 護敎文學이라는 通俗的인 文學이고 ‘文學에 있어서의 基督教’은 참다운 基督教 文學이라고 보아 진정한 文學에다 基督教라는 울타리를 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의 세 要件과는 너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文學은 民主主義처럼 앞에 어떤 修飾語가 붙으면 변질하는 것이며, 그 修飾語 때문에 Propaganda가 되는 것이다. 歷史나 科學 같은 것이 文學과 만나면 그것은 本格文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基督教과 만나면 역시 宜敎乃至 護敎文學이 되는 것이다. 金씨의 같은 論理이면 新羅時代의 鄉歌는 대부분이 佛敎詩이고 李朝時代의 詩歌는 대부분 儒敎詩가 되어야 할 것 같다. 文學에 있어서의 基督教이 결코 基督教文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文學의 素材나 主題나 背景이나 作者의 깊은 思想이지 基督教을 위한 文學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든 言及했지만 文學의 領域에서 基督教을 확대시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福音 선포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복음의 선포는 프로셀리티즘도 아니고 프로파간다도 아니다. 즉, 강제적인 강요도 아니고 배타적인 자기 선전도 아니다. 그리고 복음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교인을 만들고 더 많은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세뇌공작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선교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초대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인간을 참된 인간이 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경륜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이 일의 충성은 우선 내 옆에 있는 사람—그가 비록 이교도라도—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19) 金禧寶 : op. cit., p. 243.

일보다 우선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일도 없다.²⁰⁾

이상과 같은 原理는 분명히 既成教會의 牧會方針에 다소 어긋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많은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 생각한다. 基督教이라는 하나의 眞理로 文學을 감쌀 때 그것이 바로 改宗의 強要요 排他的인 自己宣傳일 것이다. 윌 引用한 부분을 서술한 學者도 역시 平信徒의 立場에서 윌 引用한 部分의 몇 面 뒤에 福音은 영원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그러한 우리의 現實에 대한 단 하나의 눈이나 태도를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뿐만 아니라 Paul Tillich 역시 ‘文化的 창조를 教會의 지배아래 들 수 없다’²²⁾고 주장하여 筆者의 立場에 큰 準據가 되어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主張은 더욱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독교신자들은 기독교 문학의 개념을 아주 협소하게 풀이하여 기독교적 신앙고백이나 간증의 표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하겠다. 참다운 기독교 문학은 휴머니티의 옹호자들의 모랄의 재건, 이웃 사랑과 인류애의 강조, 사회정의의 실현과 불의나 죄악에 대한 저항 등 소위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사상이 구현된 문학 전체를 일컫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정신이 무엇이나 할 때,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학적인 견해의 차나 신앙상의 여러 이견을 떠나서 생각하기로 하면, 기독교정신이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²³⁾

이렇게 基督教文學의 定義와 領域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는 것은 결국 基督教에다 文學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基督教 지배 아래 문학을 두는 것이다. 특히 같은 사람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더욱 筆者를 당황하게 한다.

요컨대, 기독교정신을 구현시키는 기독교문학은 먼저 언어와 구조를 통한 예술적 형태화를 이룩함으로써 본격문학 순수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²⁴⁾

20) 鄭鎭弘: 基督教와 他宗教와의 對話 (서울, 展望社, 1980) p. 180.

21) Ibid p. 186.

22) Paul Tillich: op. cit., p. 51

23) 丘昌煥: 문학과 기독교 정신 (韓國 宗教文學 全集 ①) pp. 369-370.

24) Ibid p. 372.

결국 앞 인용과 바로 앞 인용은 本格的이고 人間의 근원적인 問題를 形象化시킨 作品을 놓고 異教徒나 非信者는 本格文學이라 하고 基督教人은 基督教文學이라고 하는 모순을 빚하게 된다.

20世紀文學은 近代의 文學觀에 대한 批判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中世的인 傳統에 대한 반항이 아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人間에 대한 絶對的 信賴를 표명한 近代의 휴머니즘에 대한 반발이요, 人性의 善을 내세우고 原罪意識을 버린 오만분손한 近代人에 대한 반기인 것이다.²⁵⁾

이상과 같은 批評家의 말이 타당하다고 보면 20世紀文學을 創作하는 作家들은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宗教的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모든 文學이 宗教文學 乃至 基督教文學이 된다는 一蹴까지 넘게 할 주장이 基督教文學의 領域을 확대하는 見解에 들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文學의 機能論의 측면에서도 嚴肅性 乃至 眞摯性(Serious)을 강조한다면,²⁶⁾ 이것 역시 宗教性 乃至 基督教性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基督教文學의 領域을 광범위하게 잡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살핀 세 사람의 見解보다는 좀더 신중한 態度를 가진 것으로는 金榮秀의 見解를 들 수 있다. 우선 그는 宗教文學과 基督教文學 혹은 基督教詩를 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基督教藝術論도 序說이지만 펼치고 있는 점²⁷⁾ 등에서 筆者도 많은 점을 동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임무는 인생의 모순을 그려서 문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해결은 다른 것이라 말해도 좋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그 문제 해결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인생모사는 천박하여 뜻대없는 것이 되고 만다. 또 작가가 이미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고 있다면 그것을 암시하여 독자에게 해결의 열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독자를 위하고 인생의 신념이 투철한 작가라면 그것을

25) 田大雄: 宗教와 文學(現代文學, 1965. 6月號) p. 225.

26) Rene Wellek,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0) p. 31.

27) 金榮秀: 藝術論 序論(神學大學 教養國語, 서울, 新元出版社, 1977) pp, 42-58.

독자에게 주지 않고서는 못배길 것이다. 그것이 도덕적, 혹은 종교적 문학이 된다.²⁸⁾

윗 引用에서 처럼 文學은 人生의 모순을 그려서 問題를 단지 제공만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해결점의 많은 部分을 宗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던 文學과 宗教의 領域이 담벼락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原來 그렇게 구별될 수도 없는 것이긴 하다.) 어느 정도 각각의 限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文學이 技巧의 측면이나 形式의 特性으로 ‘암시한다’는 것도 타당한 견해인 셈이다. 말하자면 文學과 宗教를 同一線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한 굵이가 넘은 延長線으로 파악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文學과 宗教는 전혀 異質的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同質的도 아니면서 서로 和解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見解는 다음과 같은 宗敎學者의 言及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종교가 궁극성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반하여 문학은 상상된 창조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차이가 두 다른 실체간의 차이가 아니라 삶 전체의 파악을 위한 방법론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²⁹⁾

이렇게 詩(文學)와 宗教의 차이는 삶을 파악하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同一線上에 놓일 것이지만 方法論的인 차이에서 다른 것이다. 비단 삶을 파악하는 方法論的 차이가 이 두 가지 範疇에만 있는 것은 아니나, 특히 文學 그 가운데 詩는 宗教에서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時間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측면에서 그 同質性이 있다는 見解는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文學과 宗教의 同質性은 Harvey Cox의 宗教를 說話와 信號의 樣相으로 파악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³⁰⁾ 그는 既成敎會가 너무 권위주의적이 되어 모든 事實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따뜻한 사랑을 가진 說話, 즉 情況의 개입의 여지가 있는 說話의 樣態

28) 金榮秀: 基督教과 文學 (Op. cit. p. 171. 第13章 文學과 宗教)

29) 鄭鎮弘: 宗敎學序說 (서울, 展望社, 1980) p. 225.

30) Harvey Cox: The Seduction of the Sprit (同譯書, 馬慶一 서울, 展望社, 1980) pp. 5-17, 說話와 信號로서의 宗教

보다, 그런 餘裕가 전혀 없는 交通信號燈의 信號처럼 一方通行만 강요하게 하는 점에 큰 問題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랑과 餘裕가 있는 說話로서의 民衆의 宗教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說話가 信號에게 압도되어 있게 되면 그것은 근본적인 사랑의 喪失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Harvey Cox의 이런 見解에서는 오히려 宗教가 文學이나 詩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金씨의 見解는 앞에서 비판한 세 사람의 見解들과 大同小異하다.

기독교시의 본성을 개관하는데 있어서 기독교시를 종교적 신앙을 직접 표명한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시만을 이 범주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 상 통일적 세계관이 문명을 떠받지 못하고,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서 볼 때 온갖 신앙의 醜을 허용하고 있는 현대와 같은 시대에서 기독교시는 시에서 다만 심미적인 뿐 신앙적으로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대다수가 겪고 있는 신앙적인 기갈증과 회무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시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³¹⁾

基督教詩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는 것은 결국 基督教詩의 영역 확대로 基督教의 世界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 救援의 問題나 靈魂의 存在 같은 것에서 더 나아가 現代人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疎外를 克服해 보자는 金씨의 意圖와 意志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역시 앞 세 사람의 見解처럼 문제점을 안고는 있다. 그러나, 그의 見解는 단지 用語問題만 해결되면 보다 바람직한 無意識의 基督教詩를 理論적으로 確立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그의 藝術論은 그 점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사람들은 藝術이 우리의 文明을 부패중계 하고 백빠지게 만드는 享樂으로 타락시키고 있음을 목도하고서는 놀란 나머지 보다 道德적이고 活力을 주는 藝術을 要求하여 이러한 폐단을 是正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또 하나의 다른 偶像으로 代置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藝術이 偶像崇拜로 되어가고 있음을 目睹하고서는 예술에서 再現의 要素를 제거함으로써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誤謬는 인간이 보고 追求하는 것이 形象이 아니라 偶像이라는 事實에 있다.³²⁾

31) 金榮秀：韓國 基督教詩의 位相 (op. cit.,) p. 189.

32) 金榮秀：藝術論 序說 (op. cit.,) p. 58.

이상과 같은 그의 전후 다소 모순되는 것 같은 主張은 어쩌면 基督教人으로 詩를 창작하고 小說을 발표하는 사람들이나, 批評家나 學者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실상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科學者가 오랜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信仰을 定立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된다. 筆者의 立場에서도 藝術 속에 새로운 偶像이 들어맞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金씨의 主張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4. 結 論

지금까지 네 사람의 見解를 필자 나름대로 批判해 보았다. 사실 어쩌면 단순한 用語使用 때문이지 네 사람의 詩와 基督教의 만남의 立場은 筆者와 같은 생각일 것도 같다. 그러나, 筆者의 立場과 筆者 나름대로의 矛盾의 원인을 다시 한번 要約함으로써 結論을 삼고자 한다.

宗教詩乃至 基督教詩라는 用語는 아무래도 T.S.Eliot의 主張처럼 二流詩로 존재하며, 基督教을 宣敎하거나 護敎하는 측면이 意圖로 숨어 있는 詩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사람이 宗教詩乃至 基督教詩라는 것은 실제로 基督教詩가 되어서는 안될 領域의 것이다. T.S.Eliot의 言及처럼 文學的 판단과 宗教的 판단을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³³⁾ 이것들은 단지 無意識의 基督教詩일 것이다. 따라서,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난점 때문에 文學的 領域을 포기해버리는 結果를 초래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 네 사람들의 見解는 자기들이 文學的 판단과 宗教的 판단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다.

外國의 경우 앞서 引用한 T.S.Eliot이나 Helen Gardner 같은 사람도 分明히 宗教詩라는 분류에 대해 制限을 두고 있으며, 신중히 다루고 있다.³⁴⁾ 뿐만 아니라 Paul Tillich도 宗教를 文化의 樣相으로 보아 宗教와

23) T.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op. cit.,) p. 100.

34) Helen Gardner; Religion and Literature (London, Faber and Faber, or 1971) Religious Poetry; a Definition 에서 宗教詩定義의 문제점을 12項目이나 지적하고 있다. (金禮寶, op. cit., pp114-107, 再引用)

文學乃至藝術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 韓國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原因을 筆者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韓國의 경우 아직도 基督教이 外來宗教로서 土着化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基督教을 土着化시켜야 되겠다는 지나친 조급성으로 이런 矛盾性 있는 用語를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급성은 基督教을 土着化한다는 方法論의 측면에서도 克服되어야 할 것이다.³⁵⁾ 결코 Propaganda를 한다고 해서 土着化되는 것이 아니고, 基督教詩라는 Genre가 설정된다고 해서 基督教이 土着化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民族의 心性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韓國人이며 동시에 진짜 基督教란 修飾語를 붙이지 않은 基督敎的인 詩를 쓸 때 그것은 可能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矛盾의 原因은 韓國人의 心性 속에 자리잡고 있는 聖俗의 분리현상이 아직도 基督教人들에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俗에 대한 Complex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基督教詩라는 Genre를 설정함으로써 俗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막연한 期待感 때문에 이러한 主張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見解인 셈이다. 聖스러운 教會와 惡이 난무하는 世俗, 月曜日에서 土曜日까지와 日曜日의 生活態度的 確연한 구별이 韓國 基督教人에게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지는 않은 것일까? 筆者 역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無意識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많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聖과 俗은 분리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論理로 그 분리가 극복되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전혀 다른 聖이 俗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설을 엘리아제는 聖顯(hierophany)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 中 略 ——

聖은 俗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聖은 자연적인 사물을 성현을 통하여 역설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俗의 세계에 있는 어떠한

35) 李章植: 韓國教會의 어제와 오늘 (서울, 大韓基督教 出版社, 1977) p. 246-254 XI. 土着化方法論 가운데 3. 文化的 方法論

사물이나, 어떤 장소에 있는 사물이거나간에,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³⁶⁾

따라서, 筆者는 二流詩로서의 基督教詩라는 用語는 인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基督教詩라는 用語를 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文學的 판단에 二流가 된다고 해서 결코 基督教에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主張하고자 한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聖스럽게 存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無意識的 基督教詩에다 구태여 基督教詩라는 명칭은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基督教가 韓國人의 心性 깊숙히 無意識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基督教詩라는 장르를 설정하지 않고 진정한 基督教人에 의해 基督教的의 想像力 乃至 神學力 想像力³⁷⁾에 의해 쓰여지는 基督教의인 詩가 오히려 土着化 方法論에서도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本格的 乃至 純粹한 詩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研究 역시 神學이나 宗敎學을 補助學問으로 가져와도 근원적으로는 文學的 研究가 되어야 할 것이다.

36) 鄭鎮弘 : op. cit., pp.302-312.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pp. 20-65 참조.)

37) 金榮秀 : 神學的 想像力 (op. cit.,) p. 252.